

AI부터 반도체까지...광주 미래 산업 지도 새로 그린다

‘산업 르네상스 TF’ 본격 가동...광주·전남 신 경제권 조성 추진
산발적 추진 전략산업 결집...민·관·학·연 정책 실행력 극대화

광주시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 전략산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한다.

시는 오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산업 르네상스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광주와 전남을 잇는 신 경제권 조성 전략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그려나갈 방침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엔 구성된 ‘광주산업 르네상스 TF’는 문화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괄 TF와 5개 실무분과(AI, 모빌리티, 반도체, 에너지, 가전)로 편성됐다.

가전 분과의 경우 기존에 운영 중인 삼성플렉트 TF로 기능을 갈음하기로 했다.

TF에는 광주시를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TP),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주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지역 내 주요 유관기관과 관계자가 참여한다.

총괄 TF 위원은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등 행정과 산업계를 망라한 23명으로 구성됐다.

실무 분과위원회 역시 백은아 미래산업총괄관이 분과장을 맡고 박용범 산업정책팀장이 총괄간사로 나서 각 분야 전문가 24명이 참여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인다.

이들은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AI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TF의 핵심의제는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묶는 ‘신 경제권 조성 전략’이다.

총괄 TF는 광주·전남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전략 수립과 더불어, AX(AI 전환) 실증벨

리 조성 등 이른바 ‘모두의 AI’ 과제 수행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분야별로 AI 분과는 AI 실증도시 및 규제프리존 과제 발굴과 NPU(신경망처리장치) 컴퓨팅센터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모빌리티 분과는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실증을 위해 자율주행차 200대 규모의 실증 과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

반도체 분과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전략에 대응해 납부권 반도체 핵심 벨트 조성 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외 동향 관리에 나선다. 에너지 분과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 방안과 재생자립도시 특별법 관련 로드맵을 공유할 예정이다.

가전 분야는 삼성 플렉트 협약(MOU) 후속 조치인 공조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는다.

‘광주산업 르네상스 TF’ Kick-off 회의에서는 미래산업총괄관이 모빌리티·반도체·에너지 분야의 계획을 발표하고, AICA와 TP가 각각 AI 사업 성과와 신 경제권 조성 전략을 보고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TF 가동을 통해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미래 산업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유관기관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정책 실행력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TF는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라며 “광주가 AI 기반의 첨단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RISE 성과공유회

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광주RISE 성과공유회' 개막식에서 광주시와 17개 지역 대학 관계자들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다짐하며 'G-RISE FESTA' 개막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 고령자 5명 중 2명 일한다...고용률 특·광역시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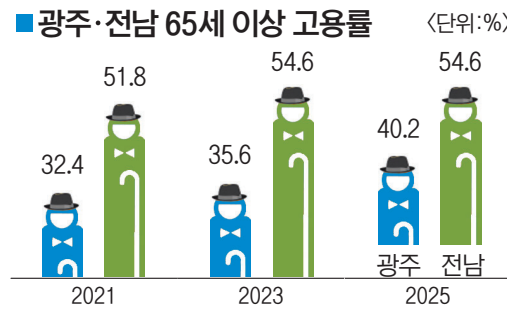
광주 40.2%·전남 54.6%

지난해 광주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섬에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5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65세 이상 고용률은 40.2%로 전년(38.3%)보다 소폭 상승했다. 광주 고령층 고용률이 40%를 넘어선 건 관련 통계를 낸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전국 평균 고령층 고용률은 39.5%로, 광주는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고용률을 나타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이 54.6%로 가장 높았고 제주(52.5%), 경북(51.9%), 전북(49.6%), 강원(49.5%), 충북(48.6%), 충남(47.0%), 경남(43.8%), 세종(41.8%), 광주 순



으로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층 고용률에 대해 “2022년 중가세 전환 이후 2025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 고용률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순차적인 은퇴로 경제활동인구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며 “2차 베이비붐 세대는 954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8.6%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광주 20.8%·전남 30.7%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 고령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각각 20%, 30%선을 넘었다.

일하는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국회에서는 법정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정년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60세 이상 정년도래자를 계속 고용하는 비수도권 지역 사업주에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기존 월 30만원에서 비수도권은 월 40만원으로 최대 3년 동안 144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지역현안 반영 건의

김태균 의장 등 6명 국회 방문...주청사 지정 등 12개 사항 전달

전남도의회가 국회를 방문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도의회 요구 사항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남도의회 의원 6명은 이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이 축적해 온 역사적 정당성과 제도적 안정성, 국가·지역 차원의 균형발전을 함께 담보해야 하는 중대한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합은 속도 못지않게 내용과 제도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과 광주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가치 반영, 약정을 삭제한 통합특별시 명칭을 법률에서 명시, 집행부 주청사 및 통합의회 청사를 법률에서 지정 등 지난 4일 ‘전남도과 광주시 통합에 대한 전남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가결하면서 함께 담아낸 12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태균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는 물론 도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별법안에 담기는 내용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사항들이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시의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 부문 대상

채은지 의원 개인 부문 우수상

광주시의회는 5일 정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대상을 비롯해 개인·공무원 부문에서도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한 ‘광주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는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재생원료 사용 제품과 생분해성·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대체제 사용을 촉진해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지역 차원의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인정됐다.

채은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는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낮은 처우와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노동 여건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돌봄·보육 등 필수서비스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채은지(왼쪽부터), 신수정, 최지현 광주시의원과 박진모 입법조사관이 수상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조례의 제·개정 및 입법 지원 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온 입

법조사담당관실 박진모 입법조사관도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함유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알로에